

## 4·25 재보선 D-9… 첫 주말 휴일 무안·신안유세 현장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지난 14일 '해제면민의 날' 행사가 열린 무안군 해제면 해제중학교를 찾아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좌로부터 한나리당 강성만 후보, 민주당 김홍업 후보, 무소속 이재현 후보.

/무안=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장터로… 상가로… 당 지도부 '기선잡기' 총출동

4·25 재·보선 공식 선거전이 개시된 이후 첫 주말과 휴일인 14일과 15일 후보들과 각 정당 지도부는 초반 기선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치열한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김홍업 후보와 무소속 이재현 후보는 장터와 상가를 집중적으로 돌며 표심 공략활동을 벌였다. 한나리당 강성만 후보도 지도부의 대대적인 지원 아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였다.

### 각 후보들 열세 지역 집중 공략

◇ 첫 주말·휴일 대회전=민주당 김홍업 후보는 15일 상대적으로 열세 지역인 무안지역 공략에 주력했다. 이삼열 의원과 김석원·김철수 의원 등의 지원 아래 해제면 5일 장터에서 유세를 갖고 삼향·청계면 일대를 돌며 득표활동을 벌였다.

김 후보는 "무안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와 국가 예산 확보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풀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며 "아버지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총력한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14일 무안읍 유세에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열린우리당 김성곤·배기선 의원, 이윤자 전 광주시 정무부시장이 지원 사격에 나섰다.

무소속 이재현 후보도 15일 해제면 5일 장터에 이어 운남면과 현경면 등 '텃밭'인 무안지역 유세에 주력했다. 이 후보는 "민선

1·2기 군수로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호남권 등 낙후 지역 투자촉진특별법 제정, FTA 반대 투쟁 전개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회복지 재원 확충, 농어촌특별전형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14일 무안읍 장터에서 유세전을 펼친데 이어 해제면에서는 군민들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한나리당 강성만 후보는 15일 신안 흑산도를 찾아 거리 유세와 주민 접촉을 통해 지지를 상승을 꾀했다. 강 후보는 무안 기업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신안 해양관광 특구 지정,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촌대책 수립 등을 역설했다. 강 후보의 14일 유세에는 강재섭 대표와 나경원 대변인, 심재철·박세완 의원 등이 지원군으로 나섰다.

### 박근혜·이명박 지원 유세 경쟁

◇한, 대선주자 유세지원 경쟁=한나리당 대선주자들은 당내 경선을 겨냥한 당심 쟁탈전의 승부처인 보궐선거 지원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보궐선거 유세 지원에 '입인' 할 태세다.

'재보선 불파신화'의 박 전 대표는 7일 강성만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데 이어 19일에는 무안·신안 지역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1주일간의 해외방문을 마치고 15일 귀국한 이 전 시장은 인천공항에서 바로 대전 서을 지역을 찾아 거리유세를 벌인 데 이어 18일

과 19일 무안과 신안, 나주, 광주에서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원희룡 의원은 16일 무안 일로와 나주 영산포, 광주를 차례로 돌며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

### 김홍업 후보 초반 세 반전 성공

◇초반 패세=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논란이 된 DJ의 차남 김홍업 후보가 범여권과 동교동계의 총력 지원에 힘입어 일단 세 반전에 성공했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지난 11일 광주일보가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 무안·신안지역 성인 남·녀 6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0%)에서는 민주당 김 후보가 26.6%를 얻어 19.6%를 기록한 무소속 이재현 후보를 오차 범위 이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리당 강성만 후보는 12.2%로 3위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4명의 무소속 후보들은 1.8%~0.6%를 얻는데 그쳤다.

김 후보의 상승 분위기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의 릴레이 유세 등 '김홍업 구하기'와 범여권의 선거공조가 한 몫하고 있다. 반면 이 후보측은 민선 1·2대 무안군수를 지낸 '토박이' 경력을 내세워 재반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전 초반인데 '지지후보가 없다'는 부동층도 30~40%에 달해 아직까지는 예측 불허의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민주·신당모임 지분협상 신경전

### 통합신당 정체성·창당 방식 이견

현재 기본정책합의서 채택안을 제시하며 선수를 친 민주당은 신당의 이념적 틀로 대한민국의 정통성 인정, 자주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남북화해협력정책 등을 제시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신당모임은 이 같은 민주당의 노선은 사실상 중도우파에 가깝다며 대선승리를 위해선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이우르는 중도개혁 노

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관점의 차이는 신당 참여세력의 범위를 둘러싼 견해차로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열린우리당의 또 다른 탈당그룹인 민생정치모임과 정치권 외곽의 시민전문가 그룹의 참여 범위다.

민주당은 천정배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민

생모임이 '진보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통합신당의 색깔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신당모임은 민생모임이 '합리적 진보' 노선인 만큼 신당으로 끌어 들어야 한다는 견해다.

또 시민전문가 그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무조건 수용이 아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신당모임은 외부세력의 대폭 수혈이 이뤄져야 이른바 '도로 민주당'을 피할 수 있다

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아울러 신당 정체성 그리고 외부세력 참여논

쟁의 연장선상에서 신당창당 방식도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공시 최고

사업번호 신 청 인	1)주소, 종류, 번호, 금액 2)발행일(자급일) 3)발행인(지급자)
2007카공 56 류중원	1)전남 고흥군 두원면 용산리 813 자기앞수표(17545159~5162) 2금1,000,000원(4매) 2)2005년 11월 3일 3)두원농업협동조합 1)자기앞수표(30537297~7300, 19204014~4019) 2금1,000,000원(10매) 2)2005년 11월 3일 3)두원농업협동조합
2007카공 66 정용수	1)광양시 광양읍 인자리 143-4 자기앞수표(033151918) 금100,000원(2매) 2)2007년 1월 15일 3)농협중앙회 동순천지점
2007카공 68 성학모	1)광양시 육룡면 율천리 836-1 자기앞수표(0479823427~28) 2금5,000,000원(2매) 2)2007년 2월 9일 3)광농협 유통지점
2007카공 69 김용구	1)광주 서구 광진동 100(매) 2)2007년 2월 9일 3)국민은행 연제동지점 금100,000원(10매) 2)2007년 2월 9일 3)국민은행 연제동지점
2007카공 70 김정선	1)순천시 인제동 40-7 자기앞수표(042505033~9034) 금100,000원(2매) 2)2007년 2월 9일 3)순천농협 덕진지점
2007카공 71 조철순	1)순천시 인제동 40-7 자기앞수표(042505033~9034) 금100,000원(2매) 2)2007년 2월 9일 3)순천농협 덕진지점
2007카공 73 이상근	1)광주 서구 광진동 100(매) 2)2007년 2월 9일 3)국민은행 연제동지점 금1,000,000원(2) 2)2007년 2월 9일 3)국민은행 연제동지점
2007카공 72 이정준	1)여수시 광무동 927 자기앞수표(18585670) 금500,000원 2)2006년 2월 20일 3)국민은행 여천지점
2007카공 73 이상근	1)전남 고흥군 도양면 용진리 690-3 한빛수선자기앞수표(00585885) 금1,000,000원(2) 2)2007년 3월 14일 3)녹동 농협중앙회
2007카공 74 이정준	1)순천시 장현동 한신면 203-3 자기앞수표(가)02486276~80, 기나02486294~5) 각급100,000원(7매) 2)2007년 3월 13일 3)순천농협 낙안지점
2007카공 75 이상근	1)순천시 송지면 죽교리 802 자기앞수표(64568972~875) 각급10,000,000원(4매) 자기앞수표(3239392~834) 각급1,000,000원(2매) 자기앞수표(0977428~429) 각급1,000,000원(4매) 자기앞수표(01466413~42) 각급500,000원(10매) 2)2006년 12월 29일, 2007년 2월 5일 3)승주농협 지점
2007카공 76 정재근	1)광주 동구 소래동 501 모던아래도타운타워 101-1405 (상단장소: 여수시 문복동 781-2 광동빌딩 4층) 기자기앞수표(010-7747-5517) 자기앞수표(03398598~8600) 각급1,000,000원(3매) 2)2007년 2월 27일 3)중소기업은행 여수지점(전라남도)
2007카공 77 이봉수	1)광주 광진동 782-1 광동빌딩 611-306 자기앞수표(010-8580620) 금1,000,000원(2) 2)2007년 1월 18일 3)산동농협운동조합
2007카공 78 정봉수	1)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147 자기앞수표(018732494) 금1,000,000원(2) 2)2007년 3월 10일 3)득량농협 예당지점
2007카공 80 김경자	1)여수시 문동 8-8 부동산파트 203-1108 자기앞수표(010-3300076) 금1,000,000원(2) 2)2007년 3월 1일 3)중소기업은행 여현지점
2007카공 81 양병우	1)여수시 여수동 505-5 차이파트 505-306 자기앞수표(83442055~2062, 83442064) 각급1,000,000원(10매) 2)2007년 3월 20일 3)여수수수협 1)자기앞수표(033325204~212) 각급100,000원(9매) 2)2007년 3월 29일 3)부산지점
2007카공 82 조경익	1)순천시 벽량면 금자리 111-2 자기앞수표(03610030) 금1,000,000원(2) 2)2007년 2월 21일 3)국민은행 연현지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양민호

### ■盧대통령 왜 개헌 철회했나

## 한 '차기 국회서 처리' 결정적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4일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안을 밤의하겠다던 뜻을 마침내 거둬들였다. 한나라당이 원원총회에서 "18대 국회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완료도록 노력하고 이를 대선 압박으로 제시한다"는 개헌 당론을 주인인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

결과적으로 노 대통령 입장에선 한나라당에 제시한 요구조건을 사실상 관철함으로써 개헌안 철회의 명분을 얻었고, 한나라당 역시 '개헌정국'의 파고를 피해가게 된 원인 게임으로 볼 수 있다.

현실 정치적 차원에서 열린 우리당이 개헌안 발의를 내려 하지 않는 상황

라당의 당론 속에 4년 연임제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이 정도는 책임있는 대국민 약속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가 한나라당에 제시했던 개헌발의 유보의 조건이 형식과 내용 면에서 모두 충족됐다는 얘기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나라당이 차기 국회에서의 4년 연임제 논의를 포함시킨 데 반대해 이를 부인했다.

청와대측은 "개헌문제는 한·미 FTA와 전역 관련이 있다"며 이 뿐 아니라 '맞바꾸기'의혹을 일축했으나, 노 대통령으로서는 한·미 FTA 말고도 부동산, 교육, 로스쿨 등 국회의 도움 없이는 처리할 수 없는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차기 대통령은 비정치적 행정가형”

### 최진 고려대 교수

"국민은 올해 대선에서 선동가형인 노무현 대통령과 반대되는 스타일인 차분하고 비정치적인 행정가형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인 최진 고려대 연구교수(행정학)는 최근 발간한 저서 '대통령리더십 종론'에서 해방 이후 60년간 우리 국민의 대통령 선택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파도이론과 강약이론에 의하면 차기 지도자는 '부드러운 관리자형'이 될 가능성 이크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노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을 '선동가형의 안티 포퓰리즘', '반 권위주의자', '승부사' 아닌 겸투사형', '인파이터 복서형', '정치적 포스트 모더니스트' 등으로 규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공인증개시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 새롭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록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증개시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제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 저자직강★  
5月 1日 첫진도 (주간반,야간반)

합격률1위! 새롭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